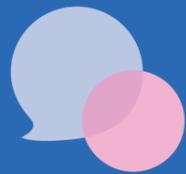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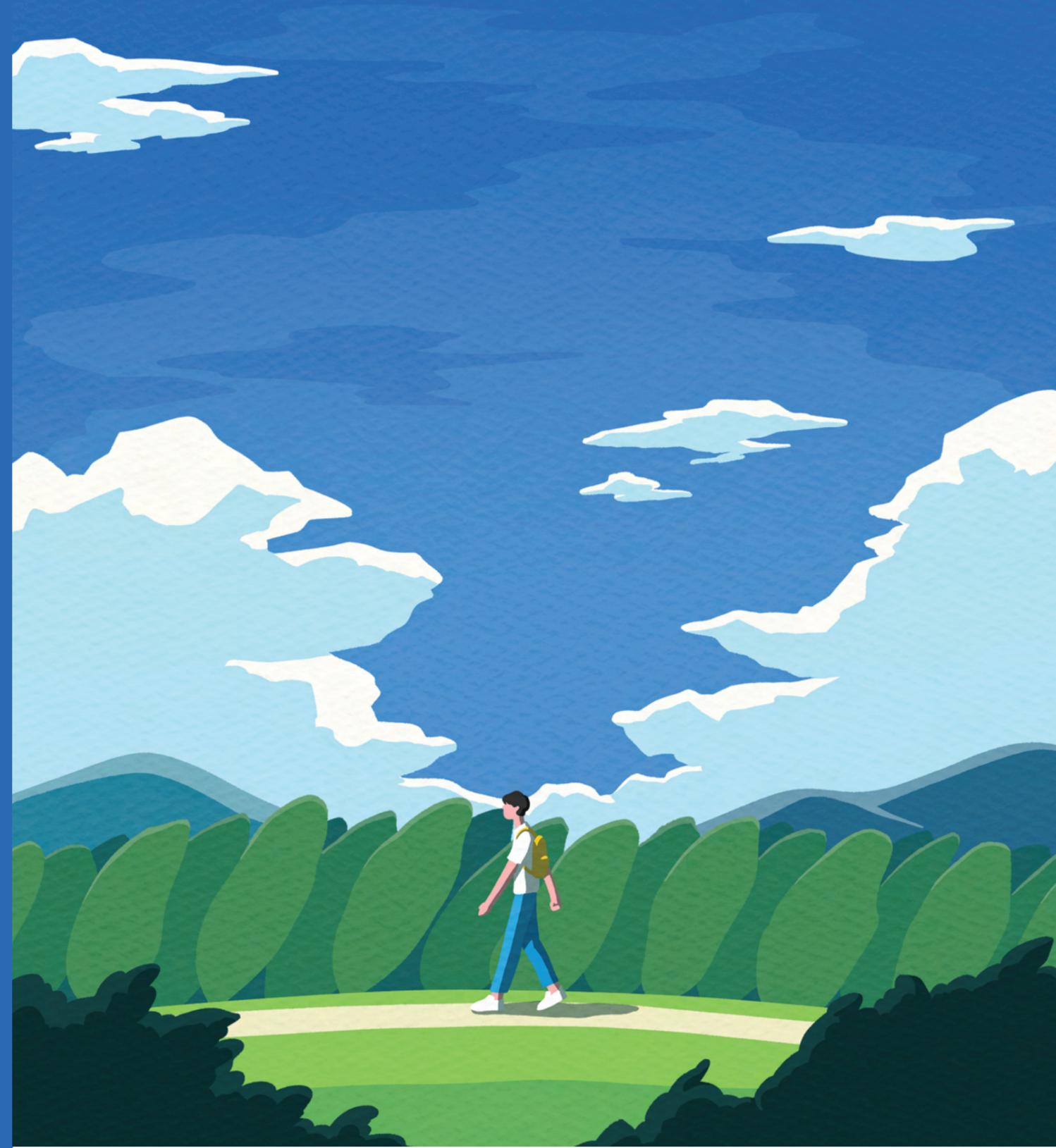


2022년 5월 호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목차

국어 배우기_뭉치가 알려주는 국어 말뭉치
언어의 장벽, 인공지능이 넘을 수 있을까? 3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사동 표현을 적절하게 써요! 9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정지용 시 둘러보기 11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국립국어원, 2022년 21개국, 75개 기관에 한국어 교재 3,800권 지원 13쪽

국어 알리기_한국어 교육, 그리고 우리
주어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 17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41쪽

국어로 함께하기
세종대왕 나신 날 625돌맞이 행사 49쪽

국어 배우기_아 다르고 어 다른 우리말
사사와 사숙, 같은 듯 다른 쓰임새 21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피동 표현을 적절하게 써요! 25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김영랑 시 둘러보기 27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국립국어원, '세종과 함께하는 스승의 날' 행사 개최 29쪽

국어 알리기_우리말 속 차별 언어
직업과 관련된 표현 31쪽

국어 알리기_우리말, 그리고 사람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 33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45쪽

국어로 함께하기
세종대왕 나신 날 625돌맞이 행사 당첨자 발표 51쪽

언어의 장벽, 인공 지능이 넘을 수 있을까?

플리토(Flitto) 대표 이정수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등장하는 모든 언어를 통역해 주는 ‘바벨 피시’. 영화 ‘스타트렉’의 외계어 통역기 ‘유니버설 트랜슬레이터’, 외계 생명체와 소통하려는 영화 ‘컨택트’까지... 언어의 장벽(심지어 외계어까지)을 뛰어넘고자 하는 인류의 소망은 우리가 즐겨 보는 책과 영화에서도 꾸준히 마주치게 된다. 그만큼 언어 간 소통은 인류의 오랜 관심사로,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 재외동포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립국어원-재외동포재단 협력

‘기계 번역’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글 번역기와 같은 온라인상의 자동 번역기들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기계 번역’이라는 용어는 생각보다 오래전인 1949년, 워렌 위버의 논문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후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워싱턴 대학, 미시간 대학 등 미국의 주요 대학과 러시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기계 번역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의 기계 번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발전해 온 결과이다.

규칙 기반 기계 번역(Rule-Based Machine Translation, RBMT)

기계 번역이 처음 나타난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규칙 기반 기계 번역’이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이 방식에서는 사람이 미리 입력해 둔 규칙에 따라 번역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새로운 언어를 번역할 때마다 매번 다른 언어의 규칙을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는 큰 불편함이 있었다. 또, 이와 같은 방식은 개발 과정에서 언어학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다국어 번역 시스템 개발에 드는 시간과 그들을 고용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었다.

말뭉치 기반 기계 번역(Corpus-based Machine Translation)

기계 번역은 1990년 전후 등장한 말뭉치 기반 기계 번역으로 성능이 크게 발전하게 된다. 말뭉치 기반 기계 번역은 크게 예시 기반 기계 번역(Example-based Machine Translation)과 통계 기반 기계 번역(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으로 나뉘어진다.

예시 기반 기계 번역은 원문과 번역문의 정보를 저장해 두고 추후 같은 문장의 번역 요청이 발생할 시 이미 저장되어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역시 언어 쌍과 각 언어 쌍에 해당하는 동의어, 반의어의 관계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통계 기반 기계 번역의 특징은 번역문에서 원문에 대응될 ‘확률’이 큰 문장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원문을 단어나 구절 단위로 분할하여 ② 각각의 단위를 번역하고 ③ 다시 문장으로 합치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②번, ③번 단계에서 실제 사용되는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더 자주 사용되는지, 가능한 조합 중 유사성이 가장 높은 문장은 무엇인지를 수치화하여 더 큰 확률의 선택지를 선택한다. 따라서 통계 기반 번역의 경우 충분한 데이터 축적이 우선시되어야 했다. 통계 기반 기계 번역의 대표적인 예시는 2006년 처음 등장한 구글 번역 서비스이다. 그러나 구글 번역기를 포함한 통계 기반 기계 번역은 두 언어의 어순이 다른 경우에는 문장 순서가 어색하게 배열되거나 문맥에 따라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번역되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는 등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신경망 기계 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

통계 기반 번역의 한계는 2000년대 이후, 딥러닝 기술이 도입되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다. 실제로 구글 번역 서비스 역시 2016년부터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터키어 등 8개 언어에 신경망 기반 기계 번역 기술을 도입하여 번역 품질이 대폭 향상되었다. 딥러닝은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기술이다.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신경망 기반 기계 번역은 기존의 통계 기반 기계 번역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 속의 단어와 어순, 문법 등을 인공 신경망으로 재구성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번역한다. 즉, 통계 기반 기계 번역이 단어나 구문 단위로 쪼개어 번역 결과를 보여 주었다면 신경망 기계 번역은 문장 단위로 전체의 문맥을 파악하고 문장 내의 단어, 순서, 의미 등을 반영한다. 따라서 통계 기반 기계 번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문장의 순서나 문맥이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통계 기반 기계 번역의 경우, ‘배’라는 단어를 사람의 신체를 뜻하는 stomach인지, 과일을 뜻하는 pear인지, 선박을 뜻하는 ship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경망 기계 번역은 문맥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공 신경망 기반 기계 번역 역시 완벽하지 않으며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훈련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자주 쓰이지 않는 언어의 경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번역이 어렵다는 점을 여전히 문제로 가지고 있다.



■ 말뭉치 구축의 방향성

2020년부터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가 꾸준히 언급되며 이목을 끌고 있다. 회사, 학교, 은행 등 다양한 기관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10대, 20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등 메타버스는 점차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말뭉치 구축의 요건과 방법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메타버스는 ‘나’를 드러내고 전 세계 사용자와 ‘소통’하는 공간이다.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들은 나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나의 성격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기능적 번역뿐만 아니라 목소리, 말투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특화 번역, 초개인화 번역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말뭉치 구축의 방향성 역시 특화, 초개인화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플리토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전후로 판매되는 학습용 데이터의 차이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2016	2021
업체별 평균 구매 수량	500,000	3,500,000
언어	영·중·일어	영·중·일·유럽·동남아어
도메인	범용	특허, 의료, 기술, 법률 등
데이터 정보	-	성별, 연령, 환경 등
데이터 종류	텍스트	텍스트, 음성, 이미지
저작권	중요도 낮음	중요도 높음



말뭉치의 판매 수량 자체도 7배 가량 증가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다언어 말뭉치, 분야별 특화 말뭉치, 분야별 도메인 특화 말뭉치, 말뭉치의 정보 및 종류가 더욱 세분되고 다양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말뭉치라는 데이터가 점차 구체화되고 성별, 연령 등 개인 정보를 담게 되면서 데이터의 저작권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말뭉치 구축은 지금까지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1. 자연스러운 언어로 구성된 말뭉치 구축 및 수집을 위해 누리 소통 매체(소셜 미디어), 웹 사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과의 결합이 활발해질 것이다.
2. 인공지능 번역기와 말뭉치 수집 및 학습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즉각적인 데이터의 정제와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3. 데이터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언어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플리토는 말뭉치 수집 및 구축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플리토는 앱과 웹에서 플리토 라이트, 아케이드 등 다양한 언어 관련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의 동의하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다. 자체 인공지능 엔진을 보유하고 있어 잘못된 번역 결과값이 나타날 경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여 학습시키고 있다. 또한 플리토 플랫폼을 에이피아이(API)*로 연동하면 고객사가 원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로 하나의 말뭉치가 구축되면, 해당 말뭉치를 시작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 에이피아이(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말한다.

기계 번역은 이렇게 규칙 기반 기계 번역에서 말뭉치 기반 기계 번역을 거쳐 신경망 기계 번역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 공간이 구축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언어의 장벽을 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 역시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양질의 다국어 빅 데이터와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제약 없는 소통을 위한 자연스럽게 정확한 번역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문장 다듬기

사동 표현을 적절하게 써요!

국립국어원

문장 다듬기 국립국어원

복지 시설을 추가로 건립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 **향상하고자 합니다.**

'향상하다'는 '실력, 수준, 기술 따위를 나아지게 하다'를 뜻합니다. 이 말은 이미 사동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향상하고자'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장 다듬기 국립국어원

지나치게 높은 기온은 물품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여 → **가져와 그기능을 떨어뜨리게 한다.** → **떨어뜨린다.**

'가져오다'는 '어떤 결과나 상태를 생기게 하다'라는 뜻을 '떨어뜨린다'는 '가치, 명성, 지위, 품질 따위를 낮게 하거나 잃게 하다'를 뜻하는 말로 이미 사동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가져와', '떨어뜨린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 다듬기 국립국어원

자연 현상을 묘사한 것을 단순화 → **하여 기호로 만든 것이다.**

'단순화하다'는 '단순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사동 의미가 들어 있으므로 사동 접미사 '-시키다'는 불필요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누리집 소식지
심표, 마침표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그그제 밤에 니가 참버리처럼 닝닝거리고 간 뒤로
불빛은 송화가루 **비운** 듯 무리를 돌려 쓰고
문풍지에 아롬푸시 어름 풀린 먼 여울이 떠는구나.

(랫나무열매) 중

지역어 **비우다** → **대응 표준어** **흘뿌리다**

살펴보기

'비우다'는 '자잘한 것이 곳곳에 골고루 흩어지게 하다'를 뜻하는 충청 방언입니다.
'비우다'와 뜻이 비슷한 표준어로는 '흘뿌리다'가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골작에는 흔히
유성이 묻힌다.

황혼에
누뤼가 소란히 쌓이기도 하고,

(구성동(九城洞)) 중

지역어 **누뤼** → **대응 표준어** **우박**

살펴보기

'누뤼'는 '우박' 또는 '우리'를 뜻하는 충청도 방언입니다.
'누뤼'라는 말은 우박의 얼음 알갱이가 유리처럼 생긴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찬 모래알 쥐여 짜는 찬 사람의 마음,
쥐여 짜라. 바시여라, 시인치도 앓여라. **역구풀** 옥어진 보금자리
동북이 훌어멈 울음 울고, 재비 한쌍 떼다,
비 마자 총을 추어.

(압천(鴨川)) 중

지역어 **역구풀** → **대응 표준어** **여뀌**

살펴보기

'역구풀'은 '여뀌'의 충청도 방언입니다.
'여뀌'는 길가나 습지 또는 시냇가에서 많이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잎은 매운맛이 나며 조미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작가 정보

정지용 시인(1902~1950)은
충청북도 옥천 출신으로
섬세하고 독특한 언어로 대상을
정신하게 묘사함으로써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서로 시집은 <<백록탄>>, <<정지용 시집>>, 신문집 <<문학 특본>> 등이 있습니다.

문학 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국립국어원, 2022년 21개국, 75개 기관에 한국어 교재 3,800권 지원

국외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대학, 초중고, 한글학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이하 국어원)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체 개발한 교재 3,800권을 21개국, 75개 기관에 지원한다.

국어원 개발 교재 8종, 73권을 대상으로 매년 전 세계 수요 조사

국립국어원은 매년 자체 개발한 교재 8종(73권)*에 대해 전 세계 한국어교육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21개국의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대학, 한글학교 등 75개 기관으로부터 교재 지원을 요청받아 총 3,800권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어 교육 수요가 팽창하는 신남방 신북방 지역에도 지원을 계속하여 이들 국가의 한국어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국에 보급될 국립국어원 교재는 각 기관의 수업용, 교원 참고용, 기관 비치 대여용 등으로 사용되어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양질의 한국어 교육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 * 국외 학습자 대상(4종): 『전 세계 유아를 위한 신나는 한국어』,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세종한국어 증보판』
- ** 국내 학습자 대상(4종): 『다문화 유아를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배우기』,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정확한 한국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자책으로도 만날 수 있는 국어원 개발 한국어 교재

한편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교수학습센터\(kcenter.korean.go.kr\)](http://kcenter.korean.go.kr)에 전자책으로 게시되어, 실물 교재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 또한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는 교재 외에도 한류 활용 콘텐츠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자료 및 교원 재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 강좌 등을 탑재하여,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담당자는 “앞으로도 현지어 및 현지 문화를 반영한 한국어 교재 개발과 지원 사업을 한국어 교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어 교재에는 전자책이나 정보무늬(QR코드)와 같은 다매체를 꾸준히 접목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p>전 세계 유아를 위한 신나는 한국어</p> 	<p>초급 한국어</p> 
<p>중급 한국어</p> 	<p>세종한국어 증보판</p> 
<p>다문화 유아를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배우기</p> 	<p>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p> 
<p>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정확한 한국어</p> 	<p>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p> 

주어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

이미향(영남대 국제학부 교수)



벌써 몇십 년 된 일이다. 외국으로 가는 자유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단체 여행을 간 한국인들이 미국 식당에서 주문을 하면서 전설 같은 일화를 남겼다. 자리를 잡고 앉은 한국인들에게 직원들이 주문을 받으러 갔는데, 일행 중 누군가가 메뉴를 통일하고 정리하여 직원에게 알려 준 것이 하나요, 어떤 이들은 ‘I am a steak.(나는 스테이크이다.)’라고 말하며 주문했다는 점이 또 하나이다. 이 특별한 언행에, 그 식당에서는 한동안 ‘한국인들은 주문할 음식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오해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가: “우리 뭐 먹을까?”
 나: “나는 비빔밥. 이 집은 비빔밥이 맛있어.”
 가: “그래? 그럼 나도 비빔밥.”



‘나는 비빔밥’, ‘나는 짜장면’과 같은 말은 한국의 식당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들릴 정도로 흔한 말이다. 한국말은 상황과 맥락을 중시하는 말이라, 서로 마주 보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의 동작을 생략해도 말이 된다. 아무리 생략을 해도 주문 직전, 음식을 고르는 상황에서 이를 못 알아듣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오늘 비빔밥을 먹을 거야. 너는 오늘 뭘 먹을 거야?’라 하면 더 어색하게 된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봐도 이 말은 참 독특하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먹는 행위를 할 주체가 먹을 음식과 하나라는 뜻이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닌가? 식당에서 자주 보는 ‘물은 셀프서비스입니다.’도 이와 같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말 아래에는 종종 ‘Water is Self-Service.’라 번역하여 적혀 있다는 것이며, 대부분은 이 영어 표현까지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이란 문법이나 어휘 사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인지 등은 언어별로 다르다. 주어와 행위의 논리성을 말할 기준은 여러 가지인 셈이다.

이런 특징으로 한국어 입말에는 종종 주어가 없다. ‘어디 가요?’, ‘학교 가요.’, ‘그럼 같이 가요.’와 같이 연속된 말이 한국어 교재에 등장할 근거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한국어 입말이 교재 대화문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던 때도 있었다. 주어나 조사가 생략된 문장에 대한 염려에서 시작된 것이겠지만, 때로는 주요 성분이 생략된 문장은 배울 가치가 없다는 맹렬한 비난으로 다가서기도 했다. 이제는 한국어교육에서 입말의 가치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과 글은 사용역이 달라 추구하는 형식도 다르다. 말을 배우려는 학습자에게 완벽한 문장만이 배울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주어 없이 쓰는 사람들은 가치 없는 말을 하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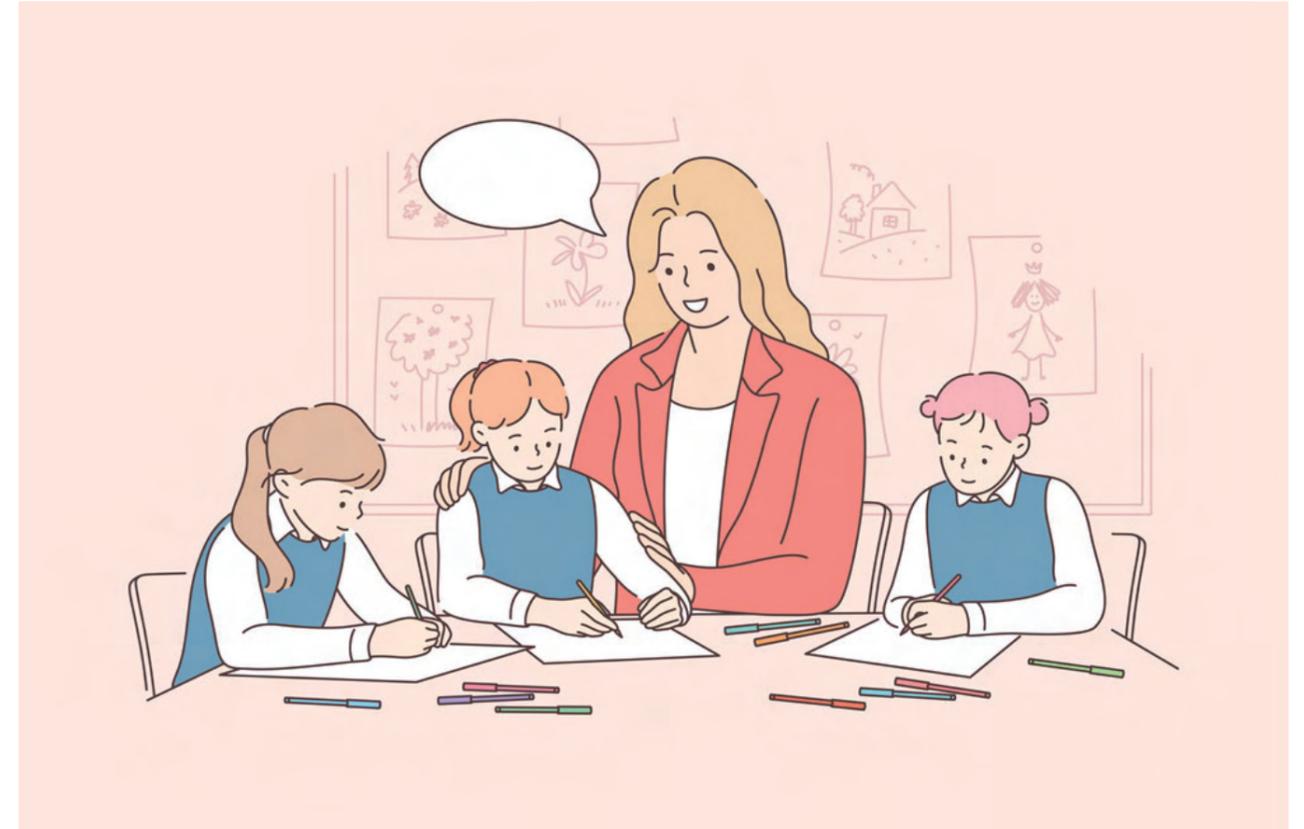
물론 여전히 가르치기에 어렵거나 조심스러운 표현은 많다. ‘곧 갈게요’와 ‘곧 갈 거예요’를 들으면서, ‘곧 갈’ 주체가 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주어가 생략된 채 알아내야 한다. ‘냉면은 이 집이 잘해요’와 같은 이중주어문에서는 주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주어인지 말해 주기가 어렵다. 어떤 학습자는 ‘우리 할아버지는 키가 커요’에서 ‘커요, 크셔요’ 중 어떤 말을 써야 할지 판단해 달라고도 한다. ‘크다’의 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높임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은 한 학생이 문장 하나를 들고 와서는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문장인데, ‘여행 다녀왔더니 재미있었냐고 해서, 재미있었다니까 정말 부러워하더군요.’라고 적혀 있었다. 과연 누가 여행을 갔고, 이 말을 누가 물었고, 부러워하는 이는 누구인가? 무엇보다도 이런 복잡한 상황을 한국인들은 어떻게 알고 넘어 가느냐고 묻는 학습자의 얼굴에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좌절마저 보였다. 그래도 이 학습자는 중급의 문턱을 무사히 넘어 났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사회와 문화가 담긴 이런 표현은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통·번역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다. 한국말 ‘나는 비빔밥’을 통·번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에서 무척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런 말을 곧 한국의 언어문화를 담은 표현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표현으로 보기 때문이다. 글자 그대로를 다루지 않고, 때로는 글자에 없는 의미로 말을 맞바꾸지 않는 통·번역의 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요하게 보고 본격적으로 가르친다. 문화적으로 맞는 표현이란 언어와 문화권에 따라 달라, 문화권별로 차이가 있는 말에 대해서는 이해도 표현도 어렵다. 이러한 점은 문화 속에서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할 말을 배울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같다. 한국어 교육에서 ‘적절한 문장’을 문법의 적절성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르칠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민, 한국어 교육을 하는 우리는 여전히 많은 숙제를 풀어 가고 있다.

사사와 사숙, 같은 듯 다른 쓰임새



공자가 진나라를 지나갈 때 있었던 일이다. 공자는 진나라에 오기 전 어떤 사람에게서 구슬을 하나 얻었다. 그 구슬은 아주 진귀한 것으로 구슬 안에 아홉 번이나 굽이진 구멍이 있었다. 공자는 그 구멍에 실을 꿰어 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어느 날 공자는 길옆에서 뽕잎을 따고 있는 아낙을 보고 묘수를 떠올렸다.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다. 아낙에게 방법을 물으니 ‘꿀을 생각해 보라’라는 말이 돌아왔다. 이에 공자는 개미 한 마리를 붙잡아 허리에 실을 묶고, 한쪽 구멍에 넣었다. 그 다음 구슬 다른 한쪽 구멍에 꿀을 바르고 기다렸다. 꿀 냄새를 맡은 개미는 곧 구멍 속으로 들어가 반대편 구멍으로 나왔다. 드디어 구슬을 꿰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고사는 모르는 것을 배우는 데 나이나 지위가 상관없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불치하문(不恥下問), 누구에게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세상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이에 적응하려면 배움이 필수다. 끊임없는 배움으로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이다. 스승 없이는 자기 한계를 자각하는 일도,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일도 수월찮다. ‘사사’나 ‘사숙’은 어떤 이를 스승으로 섬긴다는 점에서 같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라. 시인 김춘수는 릴케를 **사숙하여** 존재 탐구의 시를 썼다.

‘라’는 ‘어떤 사람이 학문이나 예술 등에 뛰어난 사람을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삼아 본받아 배우다’라는 뜻으로 ‘ㄱ(인물)은 ㄴ(인물)을 사숙하다’의 문형을 보여 준다.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많은 이들이 은사를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진정한 배움은 스승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같은 뜻에서 진정한 고마움이란

글: 강은혜

※ 참고 자료
안상순, 『우리말 어감 사전』, 도서출판 유유, 2021.

가. 그는 당대의 명창들에게 **[사사를/사숙을]** 받아 자기만의 소리를 만들어 냈다.

사사는 스승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만, 사숙은 마음속으로만 스승으로 섬길 뿐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이다. 곧 스승에게 사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숙을 받을 수는 없다. 사사는 대체로 예술이나 기예 등을 익힐 때 택하는 방식을 가리키는데, 도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사숙은 스승으로 섬길 이를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거나 만나기 어려워 그의 작품이나 책, 행적 등을 통해 사상이나 지향하는 바를 본받는 일을 가리킨다. 한편 파생어 ‘사사하다’, ‘사숙하다’는 다음의 예에서 서로 다른 문형 구조를 가진다.

나. 이날치는 박유전을 **사사하여** 판소리 서편제를 계승했다.

다. 김소월은 김억에게서 시를 **사사하였다**.

‘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섬겨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으로 ‘ㄱ(인물)이 ㄴ(인물)을 사사하다’의 문형을 보여 준다. ‘다’는 ‘어떤 사람이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다’라는 뜻으로 ‘ㄱ(인물)이 ㄴ(인물)에게서 ㄷ(시, 예술, 기예)을 사사하다’의 문형을 보여 준다.



문장 다듬기

피동 표현을 적절하게 쓰요!

 국립국어원

문장 다듬기 

고구마를 화덕에서 구우면 열의순환율이 높아져 속까지 적당하게 구워지게 된다. → 구워진다.

위 문장에는 이중 피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지다'와 결합해 피동의 뜻이 포함된 '구워지다'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게 되다'가 또 다시 덧붙었습니다.



문장 다듬기 

밭침대 위에는 기이한 무늬가 있는 돌이 놓여 있었다.

'놓여지다'는 '놓다'의 피동사인 '놓이다'와 '-어지다'가 결합되어 이중 피동이 사용된 예입니다. 위치를 '놓이다'로 수정해야 합니다.



문장 다듬기 

두 나라가 교류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거점(거점)이 다시 사용되었기에 해당지역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위 문장은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쓰여 어색합니다. 능동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주어였던 '거점'을 목적으로 바꾼 것처럼,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고칠 때는 문장 구조도 그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누리집 소식지
심표, 마침표.



문학 작품 속 살아 숨 쉬는 지역어

- 김영랑 시 둘러보기 -

국립국어원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북으로 북으로 울고 간다 기러기
남방 대륙 밑을 뒤희여 날것노
〈양근〉 중

지역어 날키다 → **대응 표준어** 날리다

살펴보기
‘날키다’는 ‘날다’의 사동사인 ‘날리다’를 뜻하는 전라 방언입니다. 전라 방언에서는 사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구’, ‘-쿠’를 많이 씁니다. 이와 같은 예로 ‘날쿠다(날리다)’, ‘삭쿠다(삭히다)’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장광에 굴뚝은 감님 날러오와
누이는 놀란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것네”
〈오매 단풍 들것네〉 중

지역어 장광 → **대응 표준어** 장독대

살펴보기
‘장광’은 장독대를 뜻하는 전라 방언입니다. 주로 ‘장광’, ‘장광’ 등으로 쓰며, 충청도에서도 씁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아! 그림다
내흔갓마음 날가치 아살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행말은 옥들에 불이달어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갓듯 희미룬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흔갓마음은
〈내 마음을 아살이〉 중

지역어 희미롭다 → **대응 표준어** 희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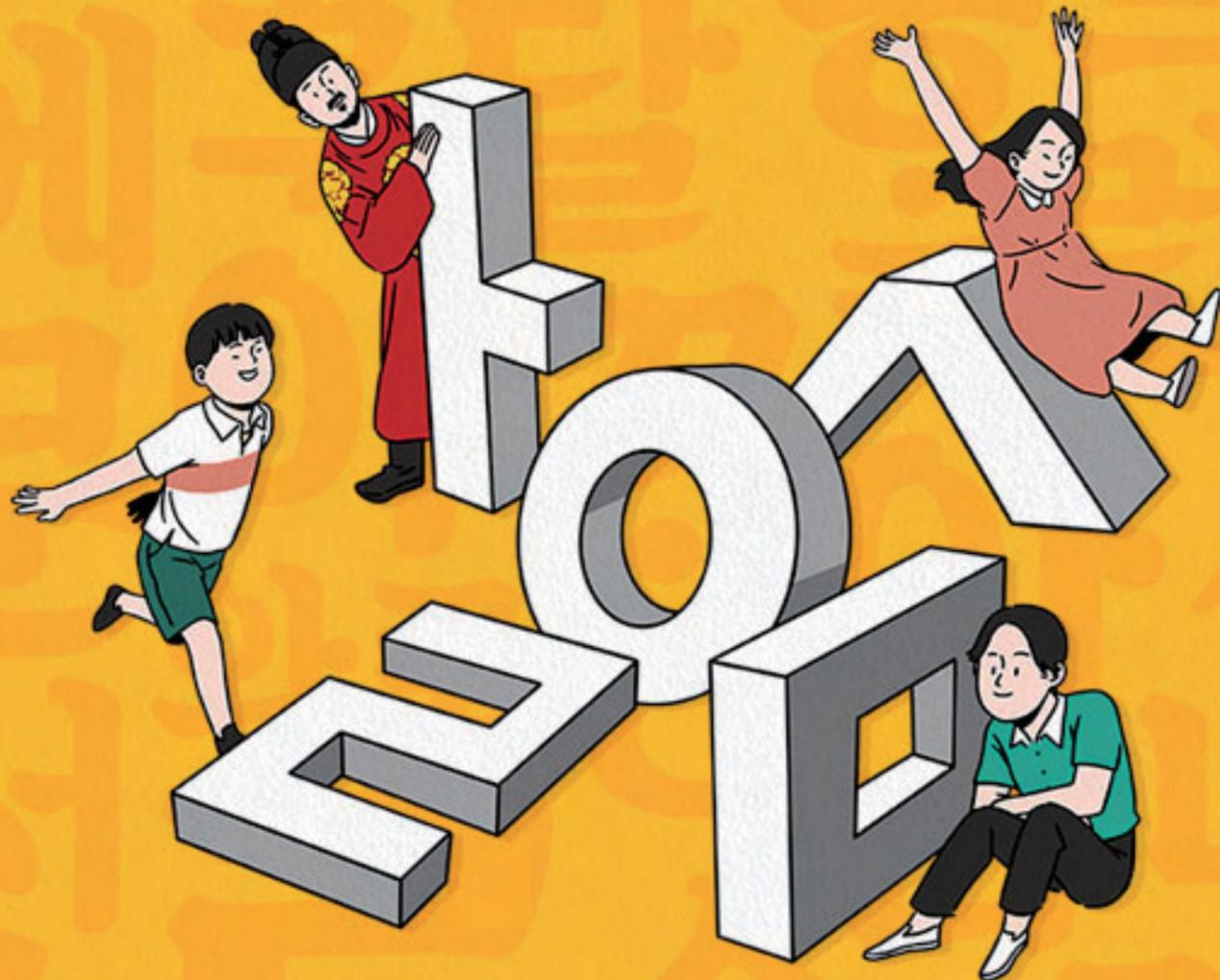
살펴보기
‘희미롭다’는 ‘희미하다’를 뜻하는 전라 방언입니다. ‘희미’와 ‘그리함’ 또는 ‘그릴만 함’을 뜻하는 접미사인 ‘-롭다’가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작가 정보
김영랑 (1903~1950)시인은 전라남도 광진 출신입니다.
«시문학» 동인으로 참여했으며, 잘 다듬어진 언어로 한국적 정서를 담은 서정시를 발표하여 순수 서정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습니다.
저서로 «영랑 시집», «영랑 시선(詩選)» 등이 있습니다.

문학 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국립국어원, ‘세종과 함께하는 스승의 날’ 행사 개최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제41회 스승의 날을 맞아 ‘겨레의 스승, 세종과 함께하는 스승의 날’을 주제로 5월 10일(화)부터 5월 13일(금)에 걸쳐 서울시 소재 7개 중학교에서 일일 선생님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국립국어원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사업의 하나로, 세종대왕 나신 날이자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인이 존경하는 스승으로서 세종의 한글 창제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 말과 글의 소중함을 학생들과 나누고자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추진되었다.

장소원 원장은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은 우리가 세종대왕을 민족의 가장 큰 스승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세종의 마음으로 우리 말글의 소중함을 느껴보도록 미래 세대와 소통하고 싶었다. 국립국어원은 앞으로 이 행사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청소년의 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말속 차별 언어

직업과 관련된 표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표현들에서는 직업을 천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직업과 관련된 차별 표현을 알아볼까요?

국립국어원

✔ **잡상인은 중앙 광장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이동 상인은 중앙 광장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잡상인'은 '잡-'과 '상인'이 결합된 말입니다.
'잡-'에는 비하의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동 상인'이나 '이동 판매원'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 **형은 방학 동안 노가다로 일했다.**

○ **형은 방학 동안 건설직 근로자로 일했다.**

'노가다'는 건설 현장 근로자를 이르는 일본어 투 표현입니다.
이 말에는 직업을 낮잡아 보는 느낌이 있으므로,
'건설직 근로자'나 '현장 근로자'로 대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 **거리는 호객꾼의 외침과 음악 소리로 활력이 넘쳤다.**

○ **거리는 홍보원의 외침과 음악 소리로 활력이 넘쳤다.**

'호객꾼'은 물건을 팔기 위해 손님을 불러 모으는 사람을 이룰 때 쓰이곤 합니다.
이 말에는 직업을 낮잡아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홍보원'이나 '판매원'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차별과 편견이 들어간 표현보다는
적절한 표현을 찾아 써 보세요.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

김주원 한글학회장



문제 하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학술단체는?’ 정답은 한글학회이다. 한글날 제정(1926년), 한글맞춤법 제정(1933년), 『조선말 큰사전』 편찬(1947년~1957년) 등 우리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겨 온 학술단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쉽표, 마침표.>>에서는 올해 한글학회장으로 취임한 김주원 한글학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다.

《쉽표, 마침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립국어원 소식지 독자 여러분께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주원

안녕하세요. 한글학회장 김주원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알타이언어학과 훈민정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2000년부터는 사라져 가는 알타이언어 현지 조사를 많이 했어요. 훈민정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훈민정음 해례에 ‘설축(舌縮)’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를 알타이언어의 모음조화와 연관시켜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2013년에는 ‘훈민정음, 사진과 기록으로 읽는 한글의 역사’라는 책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훈민정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담은 책입니다.

《쉽표, 마침표》

한국인에게 한글은 자랑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한글과 훈민정음에 관해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여러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훈민정음을 둘러싼 여러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주원

한글이 창제되었을 당시 한글의 명칭이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즉 훈민정음은 글자의 명칭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훈민정음은 세계기록유산이다.’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훈민정음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글은 세계기록유산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이와 관련된 말이나 글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언어이다.’라고 말한다면 이상한 말이 되죠.

《쉽표, 마침표》

훈민정음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주원

먼저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머리에 있는 세종임금의 서문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이 자기 생각을 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누구나 쉽게 익히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세종임금의 애민정신이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향하는 목적은 결국 백성 누구나 뜻을 잘 나타내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 외에 글자를 이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도 많이 있겠죠.

창제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처음부터 닿소리 즉 자음과 흡소리 즉 모음을 구별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제 원리는 닿소리의 경우 기본 다섯 글자(ㄱ, ㄴ, ㄷ, ㄹ, ㅇ)를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고, 다른 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가획, 즉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흡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세 가지(삼재) 즉 ‘하늘(·), 땅(—), 사람(|)’을 기본 글자로 만들고 이 글자들을 조합하여 나머지 모음자를 만들었죠.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들 낱글자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즉 운용 원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중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쓴다’라거나 ‘연서 즉 이어쓰기’, ‘병서 즉 나란히 쓰기’로 필요한 글자를 더 만들고, 이렇게 만든 초성, 중성, 종성의 각 글자를 합쳐서 한 음절의 글자로 쓰는 방법이라든지, 점을 찍어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즉 한글은 우리 겨레의 자랑일 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그 과학성과 독창성에 감탄하는 글자예요.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글의 표기 수단으로서 장점과 단점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여 한글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쉽표, 마침표》

한글학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술단체로 백 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아직 한글학회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주원

아마 주시경 선생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주시경 선생께서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운이 기울어 가던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런데 1910년에 한일합병이 이루어지면서 국어라는 말이 일본어를 뜻하게 되었죠. 따라서 ‘국어연구학회’에서 ‘배달말글몸음(조선언문회)’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가 1913년에 다시 ‘한글모’로 바꾸고, 그 이후 1921년에 ‘조선어연구회’,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고쳐 활동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일제의 탄압으로 모진 수난을 겪어야 했어요. 당시 조선어학회원들은 우리말의 어문규범을 만들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한글 연구와 보급에 앞장섰던 조선어학회를 눈엣가시처럼 여겨 조선어학회를 강제 해산하기 위해 술책을 꾸밈니다. 이를 가리켜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해요. 회원 33명을 검거하여 고문을 가했고 이들 중 이윤재 선생과 한징 선생은 감옥에서 삶을 마감하셨고, 이극로, 최현배 선생 등 네 명은 수감 생활 끝에 8·15 광복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글학회는 존재할 수 없죠.

조선어학회는 광복 후 다시 결성되어 1949년에는 명칭을 ‘한글학회’로 개칭하여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백여 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회예요. 한글학회는 역사가 긴 만큼 성과도 많은데요. 몇 가지만 추려서 이야기하자면, 1933년에 한글맞춤법을 제정해서 우리 말글의 규범을 확립했고, 1947년에서 1957년까지 최초의 한국어 대사전인 『조선말 큰사전』을 펴내었습니다. 또한 ‘한글날’을 제정하였고, 광복 이후에는 정부의 어문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대안을 갖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또한 수백 차례의 국어학 연구발표회를 열었고, 대규모의 국제대회도 수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북한의 언어 및 언어학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도 힘을 기울였어요.

또한 정기간행물로는 1932년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학, 언어학 학술지인 『한글』을 비롯하여 『문학 한글』, 『교육 한글』, 『한글 새소식』 등을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글학회는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국어운동을 실천하는 겨레 문화의 큰 별이라고 할 수 있죠.



《심표, 마침표》

『조선말 큰사전』, 『우리 토박이말 사전』, 『깁고 더한 쉬운 말 사전』 등 한국어 사전의 편찬과 간행 활동이 눈에 띕니다.

김주원

먼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암울한 시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1910년에 국권을 빼앗기면서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죠. 우리 문화와 언어도 존속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글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문화의 원동력을 절실히 느끼게 된 선각자들이 국어문법 연구와 사전 편찬을 시도했어요. 즉 사전이 단순히 어휘를 모은다는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자각에 의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특히 『조선말 큰사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주시경 선생 등이 1910년부터 조선광문회에서 ‘말모이’라는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상황과 맞물려 완성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1929년에 조선어사전 편찬회가 발족되어 사전 편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의 편찬을 위해서는 어문규범이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따라서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1940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등이 완성되면서 사전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 일제는 사전 편찬 작업이 불순한 독립운동이라고 트집을 잡고, 사전 편찬과 관련된 사람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앞서 말한 바 있는 ‘조선어학회 사건’이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약 13년간 작업했던 사전 원고가 일본 경찰에 압수되었습니다. 이 원고는 해방 후에 경성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정말 기적이라고 할 만한 놀라운 일이죠.

『조선말 큰사전』 원고엔 십수 년에 걸친 집필, 수정, 교열 작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1947년, 1949년에 『조선말 큰사전』 제1, 2권이 차례로 나왔고, 6·25 전쟁을 거친 이후에는 천신만고 끝에 제6권까지 간행하여 완간했습니다. 실로 우리 민족이 근대에 겪은 수난을 고스란히 함께 겪은 사전이에요. 이처럼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어 대사전이 탄생했습니다. 이 사전은 우리말 통일 사업의 시작점이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문화사와 독립운동사의 매우 중요한 자료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과 한국어를 보존하고자 했던 국어학자들의 염원이 녹아 있는 소중한 자료예요. 『조선말 큰사전』 원고와 그 바탕이 된 ‘말모이 원고’는 지난 2020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선말 큰사전』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글학회 누리집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요.

《심표, 마침표》

한글학회는 지난해 ‘바른한국어인증원’을 설립해 정부 공공문서의 우리말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외래어 사용 수준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김주원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의 외래어 사용 남용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예요. 따라서 국가나 정부 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바른 소리, 올바른 한글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외래어, 외국어를 갈수록 무분별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업무내용이나 보도자료에는 ‘벤처’, ‘스타트업’, ‘브리핑’, ‘로컬푸드’, ‘바우처’, ‘멘토’, ‘멘티’, ‘멘토링’ 등 난해한 정책용어가 많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이 유행한 이후에는 ‘위드 코로나’, ‘부스터 샷’, ‘언택트’ 등 외래어와 국적 불명의 언어들이 더욱 빠르게 생산되고 있어요. 이러한 외래어,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정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기도 합니다. 외국어에 취약한 노인 계층이 주로 해당되죠. 그런데 이건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이 중에도 외래어로 인한 소통과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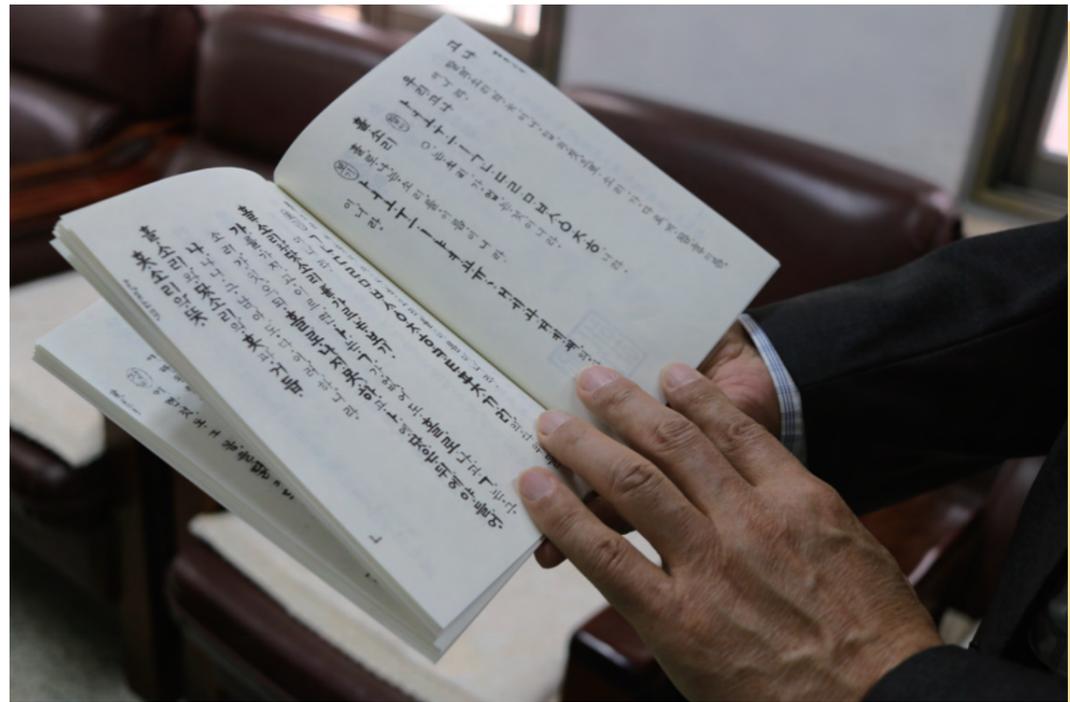
「국어기본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한다.”(제14조 제1항)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언어는 특히 국민의 눈높이와 처지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여 써야 합니다. 알기 쉽고 분명해야 하지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일수록 외래어를 되도록 줄이거나 우리말로 바꿔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표, 마침표》

요즘에는 한류 열풍과 한국어 학습 열풍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우리말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김주원

한류 열풍과 더불어 우리 말글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고무될 만한 일입니다. 우리 가수들이 해외에서 공연을 할 때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고, 관객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학당 한국어 수강 대기자 또한 1만 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은 해외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케이 팝, 케이 드라마 등이 한류 열풍을 주도하면서 올해 270개소까지 늘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물지 않고, 꾸준히 이어 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수적이예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우수한 한국어 교재를 펴내는 일도 중요하고요. 한류 열풍과 한국어를 매개로 세계인과 교감하는 일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국가적, 제도적으로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표, 마침표》

을 한해 한글문화의 보급과 발전을 이루고자 한글학회가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주원

우리 학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말글의 연구 활동과 실천 활동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올해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난 지 80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글날 기념 학술 학술대회에서 관련 연구를 주제로 발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학회 도서관에는 주시경 선생의 육필 원고, 『조선말 큰사전』 원고 등 귀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 정리, 보존 처리, 복제 등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일반인에게도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한글학회에서 하던 활동을 지금은 한국어와 한글 관련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국립국어원을 비롯한 이들 기관 단체와 협력하면서 우리 말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심표, 마침표》

한글학회의 회장으로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김주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말글의 연구 활동과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아직 발굴되지 않은 옛 자료들을 찾아내는 일에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한글학회 관련 자료들, 예를 들어 학회에서 주최한 조선어강습원(한글배곧), 국어과 지도자 양성 강습회, 조선어 강습 관련 자료들, 각종 사진 자료 말이에요. 한글학회의 지난날 활동 하나하나가 겨레의 언어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 과정을 정밀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죠. 학회의 역사가 길고 유구한 만큼 지난 옛 자료들이 음지 속에서 잊혀 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학회가 발행하고 있는 월간 『한글새소식』에 관련 소식을 꾸준히 실어서 제보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웃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본래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글: 강은혜

우리말 풀기

문제 1

시험관이 뜨거우니
[집개 / 집계]를 이용해라.

정답 찾기 Q

문제 2

등산을 하고 났더니
[장단지 / 장단지]가 땅긴다.

정답 찾기 Q

문제 3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로이 / 새로히] 떠올랐다.

정답 찾기 Q

문제 4

삼촌은 낙엽을 [짓밟았다. / 짓밟았다.]

정답 찾기 Q

문제 5

주인은 짜장면이 [불지 / 불지] 않는
비결을 공개했다.

정답 찾기 Q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응모 기간

2022. 5. 10. ~ 2022. 5. 24.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2022년 6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유*완 (6303)	이*은 (5114)	배*윤 (3529)
이*현 (6557)	여*옥 (5639)	이*건 (4000)
박*현 (3525)	최*숙 (2002)	정*우 (5641)
구*정 (2347)		

우리말 풀기

문제 1

나는 납작하게 [쭈그러진 / 쭈꾸러진] 모자를 썼다.

정답 찾기 🔍

문제 2

형은 [설거지 / 설겂이] 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왔다.

정답 찾기 🔍

문제 3

자신의 [역할 / 역활] 에 충실하십시오.

정답 찾기 🔍

문제 4

사람은 [밥심 / 밥힘] 으로 산다.

정답 찾기 🔍

문제 5

방충망의 [줄대 / 쫄대] 가 부족해 설치를 끝내지 못했다.

정답 찾기 🔍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응모 기간

2022. 5. 24. ~ 2022. 6. 7.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2022년 6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유*완 (6303)	이*은 (5114)	배*윤 (3529)
이*현 (6557)	여*옥 (5639)	이*건 (4000)
박*현 (3525)	최*숙 (2002)	정*우 (5641)
구*정 (2347)		



세종대왕 나신날

6.25

맞이 행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세종대왕
말아보는
문제로

문제
세종대왕 탄신은 5월 15일이다.

15

문제
한글은 세계기록유산이다.

국립국어원

세종대왕
말아보는
문제로

문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펴낸 책의 제목이다.

참여해 주신 정답자 중 50명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문제 풀기'를 눌러 행사에 참여해 주세요!

참여 기간
2022. 5. 10.(화)-2022. 5. 19.(목)

당첨자 발표
2022. 5. 24.(화)

당첨 선물
도서문화상품권 1만 원권

국립국어원

*행사 관련 문의: 070-4680-5005



세종대왕 나신날

625

당첨자 발표
맞이 행사



문제 세종대왕이 나신 날은 5월 15일이다.

정답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기 이전에 세종대왕이 나신 날입니다. 세종대왕이야말로 고려의 큰 스승이라는 의미에서 1965년부터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문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펴낸 책의 제목이다.

정답 『훈민정음』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기도 하고, 문자인 훈민정음을 세상에 알리고자 펴낸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문제 한글은 세계기록유산이다.

정답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을 해설한 것으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강*희(2572)	권*오(4537)	김*술(8150)	김*식(8704)	김*심(8086)
김*영(7179)	김*자(4537)	김*정(1954)	김*정(7665)	김*중(2546)
김*철(2416)	김*현(3125)	김*황(2546)	김*훈(8984)	김*휘(0842)
남*수(2097)	박*규(6557)	박*남(7972)	박*영(1343)	박*욱(0224)
박*이(4382)	배*일(7716)	백*상(3115)	서*석(8294)	서*연(0804)
서*진(8088)	성*은(7670)	신*분(8640)	신*우(3976)	양*식(5289)
유*주(6601)	유*필(2783)	윤*혁(3423)	이*금(7381)	이*단(5024)
이*실(8082)	이*자(8139)	이*지(1793)	이*희(5154)	임*연(2034)
임*진(7450)	정*숙(6557)	정*혁(4263)	조*수(4503)	조*정(8571)
최*경(5019)	최*연(3669)	춘*인(7695)	한*철(8952)	한*희(0982)

당첨 관련 문의: 070-4680-5005